

최종보고서
요약본

충청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

2012. 2



●●●● 목 차 ●●●●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서론 | 1 |
| 1) 계획의 배경 및 목적 | 1 |
| 2) 계획의 범위 | 2 |
| 3) 연구 진행 및 추진체계 | 2 |
| 2. 지역경제 현황분석 | 4 |
| 1) 지역 내 총생산 | 4 |
| 2) 산업구조 현황 | 5 |
| 3) 제조업 현황 | 6 |
| 4) 산업단지 현황 | 9 |
| 3. 산업입지정책 | 14 |
| 1) 충남의 산업입지관련 정책 | 14 |
| 2) 산업입지정책의 최근 경향 | 17 |
| 3) 충남의 산업입지 정책방향 종합 | 19 |
| 4. 산업입지 여건변화 전망과 과제 | 21 |
| 1) 산업입지 여건변화 전망 | 21 |
| 2) 과제 | 25 |
| 5. 충남 산업입지 수요추정 | 27 |
| 1) 수요추정의 방법과 예측기법 | 27 |
| 2) 수요추정 자료와 결과 | 28 |
| 6. 충남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 | 32 |
| 1)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입지 공급 | 32 |
| 2)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충남 적용방안 | 34 |
| 3)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기본방향 | 38 |
| 4) 충남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 | 41 |

●●●● 표 목 차 ●●●●

| | |
|---|----|
| <표 2-1> 지역별 GRDP(2005년 불변가격) | 4 |
| <표 2-2> 산업별 부가가치액 변화(2005년 불변가격) | 5 |
| <표 2-3> 지역별 제조업체 수(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) | 6 |
| <표 2-4> 도내 시군별 제조업체 수(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) | 7 |
| <표 2-5> 지역별 제조업 종사자 수(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) | 8 |
| <표 2-6> 충청남도 산업단지 지정 현황 | 9 |
| <표 2-7> 충청남도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| 12 |
| <표 2-8> 충청남도 유형별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 종합 | 13 |
| | |
| <표 3-1> 충남 산업입지 개발방향 | 14 |
| <표 3-2>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상 공장부지 전망 | 14 |
| <표 3-3>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상 발전전략 | 15 |
| | |
| <표 4-1>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추이 | 21 |
| <표 4-2> 수도권 정책 추이 | 22 |
| | |
| <표 5-1> 부지면적에 대한 추세연장법을 이용한 충남 제조업 부지면적의 추세 | 29 |
| <표 5-2> 부지면적에 대한 추세연장법을 이용한 충남 제조업 산업입지 수요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(성장률) | 30 |
| <표 5-3> 충남 전체와 권역 및 시군별 계획입지(부지면적)에 대한 연간 수요 예측결과의 요약 | 31 |
| | |
| <표 6-1> 충남 산업입지 공급의 추진전략 및 계획과제 | 44 |
| <표 6-2> 권역별 산업용지 연평균 공급규모(수요추정 결과) | 46 |
| <표 6-3> 향후 2020년까지 충남 권역별 산업용지 공급규모(수요추정 결과) | 47 |
| <표 6-4> 향후 2020년까지 충남 권역별 계획입지 누적 공급규모(수요추정 결과) | 48 |
| <표 6-5> 2012~2020년 충남 권역별 산업입지 공급계획 | 49 |
| <표 6-6> 향후 2020년까지 충남 권역별 공급계획상 누적 공급규모 | 49 |
| <표 6-7> 권역별 산업입지 수급계획(계획입지) | 50 |
| <표 6-8> 권역별 산업입지 수급계획(개별입지) | 51 |
| <표 6-9> 기 수립된 수급계획에서의 권역별 산업용지(계획입지) 규모 비교 | 51 |

●●●● 그림 목 차 ●●●●

| | |
|--|----|
| (그림 1-1) 연구의 진행 | 3 |
| (그림 1-2) 연구의 추진체계 | 3 |
| (그림 2-1) 충청남도 산업단지 지정 현황(2011년 4/4분기 기준) | 11 |
| (그림 4-1) 지역별 에너지 부문 1인당 및 단위소득 당 온실가스 배출현황(2006) | 23 |
| (그림 5-1) 연도별 충남 제조업 부지면적 | 28 |
| (그림 6-1)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비전 및 목표 | 41 |

1. 서론

1) 계획의 배경 및 목적

- 충청남도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심에 해당하고 수도권에 인접하여 타 지역 기업들의 빈번한 유입과 창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임
- 충남의 지역경제와 산업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변화에 대해 지역이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
- 공간적으로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은 지역의 경제성장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 중의 하나이며, 적절한 토지공급은 지역의 경제성장과 직결됨
- 이는 충청남도의 산업용지 및 산업단지를 포함한 산업적 토지이용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적인 측면에서 유도되어야 함을 의미함
- 2008년 이후 절차 간소화 등으로 산업단지 지정이 급증하였으나 미분양 증가 등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중앙정부의 산업입지 공급관리정책이 총량 규제로 전환되었으며 이의 일환으로 시도별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재 산정 및 검증이 요구됨
- 본 계획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충청남도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중장기적 산업입지 공급계획과 방안을 수립(수정)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함
- 이러한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
 - 기 계획된 충청남도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정 및 보완
 - 국토해양부의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산업용지 수요예측 및 합리적인 공급규모 제시
 -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는 중·장기적 산업용지 및 산업단지 조성 방안 수립

2) 계획의 범위

- 충남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함
- 충청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
 - 기준 연도 : 2010년(자료활용 기준년도)
 - 목표 연도 : 2020년
- 지금까지 설명한 계획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크게 5개 부문으로 구성됨
 - 충남 지역경제 및 산업적 토지이용 현황 분석
 - 충남 산업입지 수요 예측
 - 충남 지역 내 산업단지 개발가능 규모 산정
 -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의 충남지역 적용방안
 - 충남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

3) 연구 진행 및 추진체계

- 제 1 단계 : 현황분석
 - 여기서는 지역경제 및 산업별 생산, 토지이용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짐
 -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충청남도가 당면한 산업입지의 문제점과 과제가 도출됨
- 제 2 단계 : 산업적 토지이용 변화 예측
 - 이 단계에서는 먼저 국토해양부의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대한 검토와 지침에 따른 충남 산업용지 수요예측이 이루어짐
 - 도내 각 지역별 산업용지 수요가 제시됨
- 제 3 단계 : 개발규모 산정
 - 이 단계에서는 앞서 이루어진 지역별 산업적 토지이용 변화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각 지역별로 산업용지 개발규모가 산정됨

- 이를 위해 먼저 GIS를 이용한 공급가능지 분석이 이루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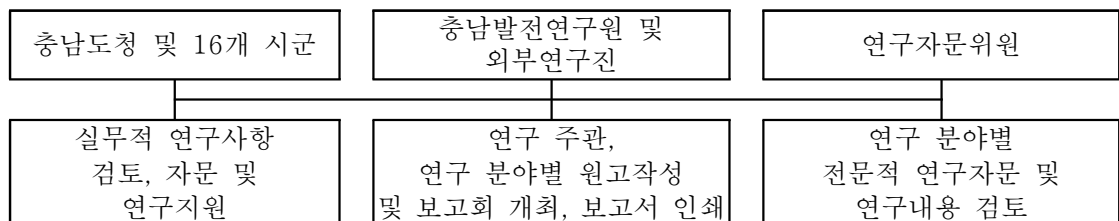
● 제 4 단계 : 계획수립

- 장래 충남 산업입지 계획의 기본방향이 제시되고, 공급가능지 분석 및 정책분석 결과를 반영하여, 도내 권역별로 산업입지 공급 일정이 제시됨



(그림 1-1) 연구의 진행

- 본 계획은 충남발전연구원의 내부연구진을 중심으로, 충남도청 및 도내 16시군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연구협의 과정을 통해 연구가 진행됨
- 또한 외부연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, 본 계획의 완성도를 높였으며, 이외 연구자문진을 통해 본 계획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함



(그림 1-2) 연구의 추진체계

요 약

2. 지역경제 현황분석

1) 지역 내 총생산

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

-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(GDP)은 2000년 691,468십억원에서 2010년 1,064,815십억원으로, 이 기간 연평균 4.41%씩 증가하였음
- 이 기간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전국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곳은 충남, 경남, 경기, 인천이며, 이외의 시도에서는 전국 수치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함

<표 2-1> 지역별 GRDP(2005년 불변가격)

(단위 : 십억원, %)

| 구분 | 2000년 | | 2005년 | | 2010년 | | 연평균 증가율 |
|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| GRDP | 비율 | GRDP | 비율 | GRDP | 비율 | |
| 서울 | 182,152 | 26.3 | 208,899 | 24.0 | 243,107 | 22.8 | 2.93 |
| 부산 | 39,277 | 5.7 | 48,069 | 5.5 | 53,957 | 5.1 | 3.23 |
| 대구 | 25,962 | 3.8 | 28,756 | 3.3 | 32,386 | 3.0 | 2.24 |
| 인천 | 32,788 | 4.7 | 40,398 | 4.6 | 51,133 | 4.8 | 4.54 |
| 광주 | 15,501 | 2.2 | 18,896 | 2.2 | 22,458 | 2.1 | 3.78 |
| 대전 | 16,128 | 2.3 | 20,030 | 2.3 | 23,210 | 2.2 | 3.71 |
| 울산 | 34,245 | 5.0 | 41,697 | 4.8 | 45,361 | 4.3 | 2.85 |
| 경기 | 114,996 | 16.6 | 169,315 | 19.5 | 226,400 | 21.3 | 7.01 |
| 강원 | 19,753 | 2.9 | 23,015 | 2.6 | 26,062 | 2.4 | 2.81 |
| 충북 | 22,060 | 3.2 | 26,721 | 3.1 | 33,834 | 3.2 | 4.37 |
| 충남 | 30,963 | 4.5 | 47,497 | 5.5 | 76,031 | 7.1 | 9.40 |
| 전북 | 21,773 | 3.1 | 25,221 | 2.9 | 29,959 | 2.8 | 3.24 |
| 전남 | 37,254 | 5.4 | 42,816 | 4.9 | 49,720 | 4.7 | 2.93 |
| 경북 | 45,333 | 6.6 | 61,757 | 7.1 | 68,890 | 6.5 | 4.27 |
| 경남 | 46,836 | 6.8 | 58,251 | 6.7 | 73,228 | 6.9 | 4.57 |
| 제주 | 6,448 | 0.9 | 7,966 | 0.9 | 9,080 | 0.9 | 3.48 |
| 전국 | 691,468 | 100.0 | 869,305 | 100.0 | 1,064,815 | 100.0 | 4.41 |
| 변동계수 | 1.0257 | | 1.0146 | | 1.0289 | | |

주 : 변동계수 = 표준편차/평균

자료 : 국가통계포털(<http://kosis.kr>)

충청남도의 1인당 GRDP 및 그 증가율은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

- 충청남도의 1인당 GRDP는 2000년 16.1백만원에서 2010년 36.6백만원으로, 이 기간 연평균 8.56%씩 증가하였음
 - 이러한 성장률은 전국 최상위권이며, 이에 따라 충남의 1인당 소득수준은 2000년 전국 평균의 1.112배에서 2010년 1.738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음
 - 따라서, 지역경제의 규모 측면뿐만 아니라 수준 측면에서도 충청남도는 국민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음

2) 산업구조 현황

제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와 충남 지역경제의 성장을 선도하고 있음

- 충청남도의 산업구조를 보면 제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GRDP 중 제조업의 비중은 2000년 34.0%에서 2010년 57.4%로 크게 증가함
 - 반면 1차 산업의 비중은 2000년 12.6%에서 2010년 5.9%로 감소하며, 서비스 부문의 비중 역시 2000년 53.4%에서 2010년 36.7%로 감소함

<표 2-2> 산업별 부가가치액 변화(2005년 불변가격)

(단위 : 십억원, %)

| 구분 | | 2000년 | | 2005 | | 2010년 | | 연평균 증가율 |
|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| | 부가가치 | 비율 | 부가가치 | 비율 | 부가가치 | 비율 | |
| 전국 | 전산업 | 623,719 | 100.0 | 780,093 | 100.0 | 960,828 | 100.0 | 4.4 |
| | 1차 산업 | 27,668 | 4.4 | 27,676 | 3.5 | 29,938 | 3.1 | 0.8 |
| | 2차 산업 | 161,241 | 25.9 | 213,858 | 27.4 | 298,784 | 31.1 | 6.4 |
| | 3차 산업 | 434,810 | 69.7 | 538,559 | 69.0 | 632,106 | 65.8 | 3.8 |
| 충남 | 전산업 | 28,029 | 100.0 | 41,315 | 100.0 | 68,291 | 100.0 | 9.3 |
| | 1차 산업 | 3,529 | 12.6 | 3,505 | 8.5 | 4,016 | 5.9 | 1.3 |
| | 2차 산업 | 9,535 | 34.0 | 17,790 | 43.1 | 39,192 | 57.4 | 15.2 |
| | 3차 산업 | 14,965 | 53.4 | 20,020 | 48.5 | 25,083 | 36.7 | 5.3 |

자료 : 국가통계포털(<http://kosis.kr>)

요 약

3) 제조업 현황

충남의 제조업체 수 증가율은 전국 최상위를 차지함

- 시도별로 제조업체(종사자수 10인 이상)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(4.2%)와 광주광역시(3.8%), 그리고 경상남도(3.2%) 등임
 - 즉, 이러한 결과는 이들 지역들에서 제조업 생산활동이 타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음을 나타냄
 - 참고적으로, 이들 지역과는 다르게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 등 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에서는 같은 기간 제조업체 수의 감소가 나타남

<표 2-3> 지역별 제조업체 수(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)

(단위 : 개소, %)

| 구분 | 2000년 | | 2004년 | | 2009년 | | 연평균 증가율 |
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| 업체수 | 비율 | 업체수 | 비율 | 업체수 | 비율 | |
| 서울 | 6,663 | 13.0 | 5,693 | 10.4 | 5,093 | 8.8 | -2.94 |
| 부산 | 4,134 | 8.1 | 3,902 | 7.1 | 3,825 | 6.6 | -0.86 |
| 대구 | 3,025 | 5.9 | 2,971 | 5.4 | 2,869 | 4.9 | -0.59 |
| 인천 | 4,523 | 8.8 | 4,712 | 8.6 | 4,281 | 7.4 | -0.61 |
| 광주 | 760 | 1.5 | 946 | 1.7 | 1,066 | 1.8 | 3.83 |
| 대전 | 623 | 1.2 | 648 | 1.2 | 728 | 1.3 | 1.75 |
| 울산 | 908 | 1.8 | 1,081 | 2.0 | 1,244 | 2.1 | 3.56 |
| 경기 | 15,771 | 30.8 | 18,306 | 33.4 | 20,050 | 34.6 | 2.70 |
| 강원 | 679 | 1.3 | 756 | 1.4 | 762 | 1.3 | 1.29 |
| 충북 | 1,696 | 3.3 | 1,886 | 3.4 | 2,050 | 3.5 | 2.13 |
| 충남 | 2,004 | 3.9 | 2,429 | 4.4 | 2,901 | 5.0 | 4.20 |
| 전북 | 1,285 | 2.5 | 1,233 | 2.3 | 1,593 | 2.7 | 2.42 |
| 전남 | 1,151 | 2.3 | 1,182 | 2.2 | 1,331 | 2.3 | 1.63 |
| 경북 | 3,219 | 6.3 | 3,563 | 6.5 | 3,972 | 6.8 | 2.36 |
| 경남 | 4,576 | 8.9 | 5,349 | 9.8 | 6,075 | 10.5 | 3.20 |
| 제주 | 131 | 0.3 | 140 | 0.3 | 156 | 0.3 | 1.96 |
| 전국 | 51,148 | 100.0 | 54,797 | 100.0 | 57,996 | 100.0 | 1.41 |
| 변동계수 | 1.197 | | 1.268 | | 1.299 | | |

자료 : 국가통계포털(<http://kosis.kr>)

충남 내에서 북부 지역의 제조업체 수 증가율이 충남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함

- 충청남도 내에서 북부 지역의 제조업체 수의 증가율이 충남 평균 4.20%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
 - 서산(9.59%), 아산(9.05%), 당진(8.84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반면, 연기군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004년 증가했다가, 2009년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선 지역은 논산, 금산, 연기, 서천 지역이며, 연기군은 2004년 187개소에서 2009년 150개소로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
 - 연기군은 세종시에 편입되는 지역으로 일부 산업단지가 재정비되면서 업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일부 반영하고 있음

<표 2-4> 도내 시군별 제조업체 수(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)

(단위 : 개소, %)

| 구분 | 2000년 | | 2004년 | | 2009년 | | 연평균 증가율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
| | 업체수 | 비율 | 업체수 | 비율 | 업체수 | 비율 | |
| 천안 | 736 | 36.7 | 860 | 35.4 | 967 | 33.3 | 3.08 |
| 공주 | 102 | 5.1 | 99 | 4.1 | 107 | 3.7 | 0.53 |
| 보령 | 54 | 2.7 | 62 | 2.6 | 76 | 2.6 | 3.87 |
| 아산 | 305 | 15.2 | 463 | 19.1 | 665 | 22.9 | 9.05 |
| 서산 | 57 | 2.8 | 86 | 3.5 | 130 | 4.5 | 9.59 |
| 논산 | 151 | 7.5 | 159 | 6.5 | 157 | 5.4 | 0.43 |
| 계룡 | 6 | 0.3 | 6 | 0.2 | 7 | 0.2 | 1.73 |
| 당진 | 91 | 4.5 | 114 | 4.7 | 195 | 6.7 | 8.84 |
| 금산 | 108 | 5.4 | 118 | 4.9 | 113 | 3.9 | 0.50 |
| 연기 | 147 | 7.3 | 187 | 7.7 | 150 | 5.2 | 0.22 |
| 부여 | 53 | 2.6 | 40 | 1.6 | 52 | 1.8 | -0.21 |
| 서천 | 51 | 2.5 | 74 | 3.0 | 69 | 2.4 | 3.42 |
| 청양 | 30 | 1.5 | 34 | 1.4 | 37 | 1.3 | 2.36 |
| 홍성 | 38 | 1.9 | 47 | 1.9 | 77 | 2.7 | 8.16 |
| 예산 | 64 | 3.2 | 67 | 2.8 | 86 | 3.0 | 3.34 |
| 태안 | 11 | 0.5 | 13 | 0.5 | 13 | 0.4 | 1.87 |
| 충남 | 2,004 | 100.0 | 2,429 | 100.0 | 2,901 | 100.0 | 4.20 |
| 변동계수 | 1.423 | | 1.431 | | 1.428 | | |

자료 : 국가통계포털(<http://kosis.kr>)

충청남도 제조업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최상위임

-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제조업체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충남의 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음
 - 2000~2009년 기간동안 제조업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이 0.66%인 반면, 충남은 연평균 4.51%의 증가율을 기록함

<표 2-5> 지역별 제조업 종사자 수(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)

(단위 : 명, %)

| 구분 | 2000년 | | 2004년 | | 2009년 | | 연평균 증가율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| 종사자수 | 비율 | 종사자수 | 비율 | 종사자수 | 비율 | |
| 서울 | 179,643 | 7.8 | 155,051 | 6.5 | 131,797 | 5.4 | -3.38 |
| 부산 | 153,326 | 6.6 | 136,900 | 5.7 | 125,567 | 5.1 | -2.19 |
| 대구 | 108,749 | 4.7 | 98,286 | 4.1 | 95,272 | 3.9 | -1.46 |
| 인천 | 181,353 | 7.8 | 172,456 | 7.2 | 155,996 | 6.4 | -1.66 |
| 광주 | 41,873 | 1.8 | 50,523 | 2.1 | 56,909 | 2.3 | 3.47 |
| 대전 | 32,876 | 1.4 | 30,250 | 1.3 | 32,925 | 1.3 | 0.02 |
| 울산 | 128,811 | 5.6 | 137,232 | 5.8 | 138,377 | 5.6 | 0.80 |
| 경기 | 657,520 | 28.5 | 711,989 | 29.8 | 724,730 | 29.5 | 1.09 |
| 강원 | 28,070 | 1.2 | 27,676 | 1.2 | 28,023 | 1.1 | -0.02 |
| 충북 | 98,373 | 4.3 | 104,925 | 4.4 | 116,892 | 4.8 | 1.93 |
| 충남 | 122,900 | 5.3 | 148,218 | 6.2 | 182,757 | 7.5 | 4.51 |
| 전북 | 67,378 | 2.9 | 64,570 | 2.7 | 73,721 | 3.0 | 1.00 |
| 전남 | 58,703 | 2.5 | 59,655 | 2.5 | 66,805 | 2.7 | 1.45 |
| 경북 | 193,600 | 8.4 | 209,647 | 8.8 | 210,827 | 8.6 | 0.95 |
| 경남 | 254,679 | 11.0 | 275,170 | 11.5 | 308,557 | 12.6 | 2.16 |
| 제주 | 3,051 | 0.1 | 3,009 | 0.1 | 3,725 | 0.2 | 2.24 |
| 전국 | 2,310,905 | 100.0 | 2,385,557 | 100.0 | 2,452,880 | 100.0 | 0.66 |
| 변동계수 | 1.064 | | 1.118 | | 1.113 | | |

자료 : 국가통계포털(<http://kosis.kr>)

충남의 제조업 생산액 규모 및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

- 충청남도 제조업 생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14.38%로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음

- 이외 경상남도, 전라남도,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1.55%, 10.80%, 그리고 10.26%로 전국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음
- 충남 제조업 생산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0년 7.2%에서 2009년 11.4%로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남

4) 산업단지 현황

**2011년 4/4분기 현재 충청남도 내에 총 145개소, 110,481천㎡
면적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음**

- 2011년 4/4분기 현재, 충청남도 내에는 총 145개소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음
 - 충남 전체 110,481천㎡ 중 당진시가 36,078천㎡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, 서산시 14,028천㎡, 아산시 13,276천㎡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

<표 2-6> 충청남도 산업단지 지정 현황

(단위 : 개소, 천㎡)

| 구분 | 국가산업단지 | | 일반산업단지 | | 도시첨단산업단지 | | 농공단지 | | 합계 |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|
| | 단지수 | 면적 | 단지수 | 면적 | 단지수 | 면적 | 단지수 | 면적 | 단지수 | 면적 |
| 천안 | | | 8 | 8,286 | | | 4 | 703 | 12 | 8,989 |
| 공주 | | | 4 | 2,247 | | | 10 | 1,787 | 14 | 4,034 |
| 보령 | 1 | 6,231 | 3 | 4,438 | | | 7 | 1,098 | 11 | 11,767 |
| 아산 | | | 6 | 12,236 | | | 9 | 1,040 | 15 | 13,276 |
| 서산 | 1 | 912 | 7 | 11,839 | | | 4 | 1,277 | 12 | 14,028 |
| 논산 | | | 3 | 1,467 | | | 7 | 820 | 10 | 2,287 |
| 계룡 | | | 1 | 327 | | | | | 1 | 327 |
| 당진 | 2 | 18,154 | 5 | 16,927 | | | 7 | 997 | 14 | 36,078 |
| 금산 | | | 1 | 872 | | | 5 | 842 | 6 | 1,714 |
| 연기 | | | 6 | 4,770 | | | 3 | 353 | 9 | 5,123 |
| 부여 | | | | | | | 6 | 865 | 6 | 865 |
| 서천 | 1 | 2,755 | | | | | 5 | 975 | 6 | 3,730 |
| 청양 | | | | | | | 6 | 989 | 6 | 989 |
| 홍성 | | | 1 | 1,135 | | | 8 | 952 | 9 | 2,087 |
| 예산 | | | 4 | 3,760 | | | 8 | 1,283 | 12 | 5,043 |
| 태안 | | | | | 1 | 39 | 1 | 105 | 2 | 144 |
| 충남 계 | 5 | 28,052 | 49 | 68,304 | 1 | 39 | 90 | 14,086 | 145 | 110,481 |

자료 : 산업입지정보시스템,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(2011년 4/4분기)

■ 국가산업단지

**충청남도 소재 5개 국가산업단지는 주로 아산만과 서해안
연접지역에 지정되어 있음**

- 2011년 4/4분기 현재, 충청남도 내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총 5개소 지정되어 있음
 - 총 3개소(아산, 대죽자원, 석문 단지)가 도내 북부권에 지정되어 있음(외국인 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제외됨)
 - 이외 보령소재 고정 국가산업단지, 서천소재 장항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음

■ 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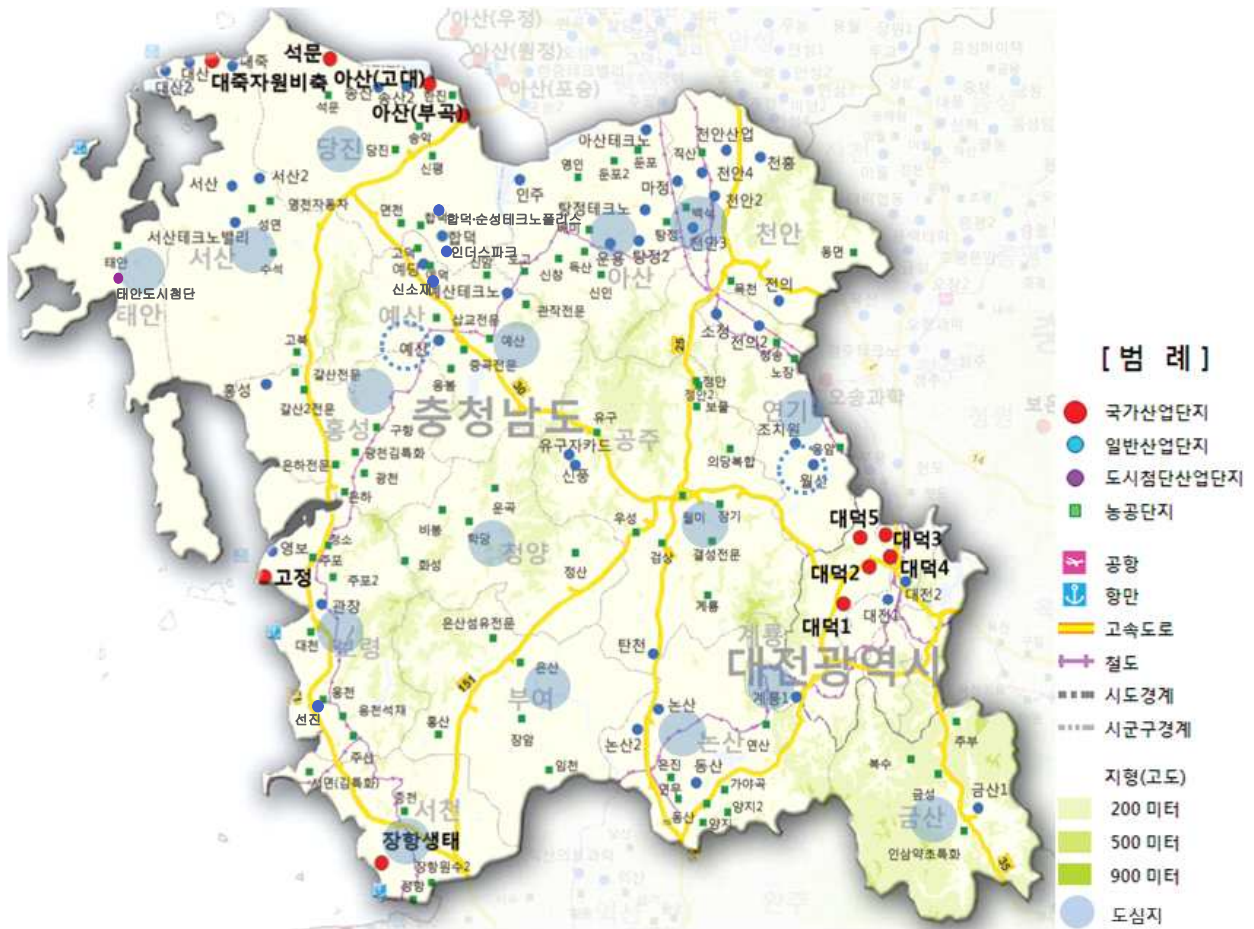
**충청남도 소재 49개 일반산업단지 중 14개소가 천안과 아산에
집중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,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태안에 위치**

- 2011년 4/4분기 현재, 충청남도 내에는 총 49개소의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음
 - 이 중 상당수가 천안 및 아산에 집중되어 있음
 - 즉, 연기와 논산·금산 등의 일부 내륙권 및 금강권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북부권에 집중 지정되어 있는 상태임
- 2011년 4/4분기 현재, 충청남도 내에는 총 1개소(태안)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음

■ 농공단지

**충청남도 소재 90개 농공단지는
각 시군별로 상대적으로 고르게 지정되어 있음**

- 2011년 4/4분기 현재, 충청남도 내에는 총 90개소의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음
 - 일반산업단지와는 다르게 농공단지의 경우 도내 각 시군별로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실정임



자료 : 국토해양부, 산업입지정보시스템, 재수정

(그림 2-1) 충청남도 산업단지 지정 현황 (2011년 4/4분기 기준)

2011년 4/4분기 현재 전체 산업단지 분양대상 면적은 79.436㎢,
이 가운데 개발이 완료된 면적은 48.175㎢이며,
미분양율은 6.7%임

- 2011년 4/4분기 현재,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분양대상 면적은 총 79,436천㎡로 이 가운데 60.6%인 48,175천㎡의 면적이 개발 완료된 상태임
- 개발 완료된 면적 중 분양이 완료된 면적은 44,966천㎡로 2011년 4/4분기 기준 미분양율은 6.7%임
- 미분양면적 3,209천㎡ 중 국가산업단지는 813천㎡, 일반산업단지는 2,168천㎡, 농공단지는 228천㎡로 나타남

요 약

<표 2-7> 충청남도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

(단위 : 개소, 천 m^2 , %)

| 구분 | 단지 수 | 지정면적 | 분양대상 면적 | 개발면적 | 분양면적 | 미분양면적 | 미분양율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
| 합계 | 145 (100.0) | 110,481 (100.0) | 79,436 (100.0) | 48,175 (100.0) | 44,966 (100.0) | 3,209 (100.0) | 6.7 |
| 국가 산업단지 | 5 (3.4) | 28,052 (25.4) | 19,544 (24.6) | 9,402 (19.5) | 8,589 (19.1) | 813 (25.4) | 8.7 |
| 일반 산업단지 | 49 (33.8) | 68,304 (61.8) | 48,943 (61.6) | 28,810 (59.8) | 26,642 (59.2) | 2,168 (67.5) | 7.5 |
| 도시첨단 산업단지 | 1 (0.7) | 39 (0.0) | 34 (0.0) | 0 (0.0) | 0 (0.0) | 0 (0.0) | - |
| 농공단지 | 90 (62.1) | 14,086 (12.7) | 10,915 (13.7) | 9,963 (20.7) | 9,735 (21.7) | 228 (7.1) | 2.3 |

주 : 미분양율 = 미분양면적/개발면적. 괄호 안의 수치는 구성비
 자료 : 충청남도(<http://www.chungnam.net>), 2011년 4/4분기 기준

2011년 4/4분기 기준 충남 전체 산업단지 조성률은 60.6%,
 개발완료된 분양면적에 대한 미분양률은 6.7%임

- 충청남도 내 전체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110,481천 m^2 이며, 이 중 분양대상면적은 79,436천 m^2 , 개발면적은 48,175천 m^2 임
- 2011년 4/4분기 기준 충남 전체 산업단지 조성률은 60.6%이며,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중이거나 미개발인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, 대부분의 시군에서 70% 이상의 조성률을 보이고 있음
 - 국가산업단지의 경우, 서천은 미개발, 당진은 조성률이 42.6%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
 - 일반산업단지의 경우, 홍성, 예산은 미개발, 공주는 조성률이 18.7%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, 공주는 미분양률 또한 70.3%로 높게 나타남
 -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최근에 지정된 산업단지로 충청남도에서는 유일하게 태안에 지정되어 있으며, 미개발 임
 - 농공단지는 모든 시군에서 조성률이 70%이상, 미분양율이 10% 미만임

<표 2-8> 충청남도 유형별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 종합

(단위 : %)

| 지역구분 | 국가산업단지 | | 일반산업단지 | | 도시첨단산업단지 | | 농공단지 | |
|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
| | 조성률 | 미분양율 | 조성률 | 미분양율 | 조성률 | 미분양율 | 조성률 | 미분양율 |
| 충남 | 48.1 | 8.7 | 58.9 | 7.5 | 0.0 | 0.0 | 91.3 | 2.3 |
| 천안 | | | 83.0 | 24.7 | | | 100.0 | 0.0 |
| 공주 | | | 18.7 | 70.3 | | | 90.6 | 7.2 |
| 보령 | 76.2 | 0.0 | 47.4 | 0.0 | | | 87.5 | 5.5 |
| 아산 | | | 69.5 | 0.5 | | | 99.9 | 4.9 |
| 서산 | 100.0 | 0.0 | 74.3 | 9.0 | | | 100.0 | 0.0 |
| 논산 | | | 54.3 | 0.0 | | | 99.0 | 0.0 |
| 계룡 | | | 100.0 | 36.5 | | | | |
| 당진 | 42.6 | 15.3 | 43.3 | 2.4 | | | 100.0 | 0.0 |
| 금산 | | | 100.0 | 0.0 | | | 72.4 | 2.8 |
| 연기 | | | 87.8 | 0.1 | | | 100.0 | 0.0 |
| 부여 | | | | | | | 73.0 | 0.0 |
| 서천 | 0.0 | 0.0 | | | | | 75.4 | 0.0 |
| 청양 | | | | | | | 87.7 | 2.7 |
| 홍성 | | | 0.0 | 0.0 | | | 85.9 | 3.5 |
| 예산 | | | 0.0 | 0.0 | | | 100.0 | 0.0 |
| 태안 | | | | | 0.0 | 0.0 | 100.0 | 0.0 |

주 : 조성률 = 개발면적/분양대상면적. 미분양율 = 미분양면적/개발면적
 자료 : 산업입지정보시스템,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(2011년 4/4분기)

요 약

3. 산업입지정책

1) 충남의 산업입지관련 정책

산업입지 개발지침 제4조(지역별 개발방향)
→ 서해안 임해산업단지, 수도권 이전기업 수용 산업단지 개발

<표 3-1> 충남 산업입지 개발방향

| 구분 | 산업입지 개발방향 |
|-----------|---|
| 충남·북 및 대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해안지역에 대규모 임해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의 거점을 확보하고, 내륙지역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적정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함 |

자료 : 산업입지 개발지침(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-104호/2005. 5. 6)

제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(산업입지법)
→ 2011년까지 충남 개발규모는 15km², 개발예정지는 석문

- 산업입지법 제5조의 2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(2002-2011)을 수립함

<표 3-2>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상 공장부지 전망

(단위 : km²)

| 구분 | 현황(2001) | 순수요증가('02-'11) | 추가수요 | 총공급 | | | 공장부지(2011)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| | 계 | 계획 | 개별 | |
| 전국 | 512 | 91.0~102.3 | 15.3~17.7 | 106.3~120.0 | 75.7~85.6 | 30.6~34.4 | 618.3~632.0 |
| 충남 | 51.4 | 11.6~12.0 | 2.3~2.4 | 13.9~14.4 | 10.4~10.8 | 3.5~3.6 | 65.3~65.8 |

자료 : 건설교통부,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(2002-2011), 2003

- 제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 상의 충청남도 산업입지 공급계획
 - 2011년까지 충남 산업단지 개발규모는 15.0㎢이며, 주요 개발예정지는 석문지구임

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(2009~2013)
**충남의 전략산업 : 전자정보기기, 자동차 부품, 첨단문화,
 농축산바이오**

-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산업의 지역별 특화와 연계 강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

<표 3-3>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상 발전전략

| 목표 | 발전전략 |
|--|---|
| 디스플레이, 자동차 부품 등 산업과 기초과학이 융합된 글로벌 거점조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초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지역적 강점을 활용하여 세계평판 디스플레이 및 차세대 소자 제조장비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 • 친환경·안정성을 고려한 시스템단위 모듈부품 개발로 지역 주도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육성 |

자료 :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(2009~2013)

임대산업단지 제도
→ 충남은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만이 조성 중임

- 정부는 투자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입지비용과 수도권 내 산업집중을 완화코자 임대전용 산업단지 제도를 도입(2006. 4. 6)
 - 기존의 임대산업단지제도는 국내기업의 임대수요 충족 곤란 및 외투기업과의 역차별 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동 제도의 도입결정
- 따라서 임대산업단지제도는 기존의 국민임대산업단지,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, 자유무역지역 내 임대단지 외에 임대전용 산업단지(New Biz Park)의 형태로 운용될 것임
 - 그러나 현재, 충남지역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만이 조성 중

**충청남도 산업입지 정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도차원의
기업유치 행정지원제도를 통해 보완하고 있음**

- 충남의 산업입지 정책은 중앙정부의 상위법에 의존하며, 「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 등을 통해 기업유치 및 투자를 촉진
 -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충청남도 차원의 기업유치 행정지원제도를 통해 산업입지정책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임

**「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」에 따라 산업단지조성 및
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음**

- 국토의 계획적 이용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의 적기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촉진이 목적임
- 이를 위해,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명시하고 있음
 - 경제통상실에 ‘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’를 설치하여 투자의향서 접수 및 이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, 농지·산지 현황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함
 - 산업단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‘충청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’를 구성·운영함
- 또한,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결정시 이윤율을 명시하고 있음
 - 「산업입지법」 시행령 제40조 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」의 제26조 제9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이하로 함
 -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의 경우는 「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」에 따라 100분의 12이하로 함

2) 산업입지정책의 최근 경향

여건변화와 산업입지정책의 전환

- 과거 우리나라의 산업 및 산업입지정책은 총량적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컸으나, 결과적으로 지역간 · 부문간 격차를 확대시킴
- 이외 여러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정책 방향은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음
 -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, 공급자 중심의 산업입지 개발, 대규모 단지개발, 물적기반의 중심의 입지정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
 -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이라는 과제에 당면함으로써, 이에 부합하는 산업입지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
- 세계 각국의 산업입지정책 요약
 - 기본방향 : 기존 산업단지 재구조의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입지정책 추진
 - 공급체계 : 공영개발 중심의 산업단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,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
 - 개발제도 및 유형 :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등의 입지정책을 총괄하는 제도의 통합과 기능별로 다양한 유형의 산업단지 도입
 - 기반시설 지원 : 산업입지비용 절감 위해 다양한 입지지원제도의 도입 및 낙후지역과 산업쇠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제도 도입
 - 분양제도 및 분양가 :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용지 등의 공급을 확대
 - 관리제도 : 개발과 관리의 일원화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한 단지관리제도의 도입
- 세계 각국의 산업입지정책 분석 통한 시사점 도출
 - 산업발전을 위한 입지정책(지원제도의 다양화와 확대 등)
 - 계획입지제도의 확충 · 정비와 합리적 운용

- 기존 산업집적지역의 재개발 활성화
- 강력한 환경규제의 효과적 운용
- 관련 주체의 합리적 역할설정(중앙 및 지방정부, 민간 등)
- 산업입지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 도모 등

지식기반경제시대의 도래와 산업입지정책

- 세계 각국은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
 - 특히 첨단 · 과학 단지는 지역기술혁신정책의 핵심적 도구이며, 이에는 정부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
 - 해외사례로부터 도출된 지식기반산업단지에 대한 시사점
 - 소규모 · 점진적 개발, • 공공부문 주도, • 관리 및 기업지원기능 강조,
 - 다양한 지원방안 활용
- 지식기반산업입지로 대변되는 신개념의 생산공간은 혁신적 환경, 고기술 인력, 전문기업의 집적, 관련 기업 간 연계 등이 중심이 됨
 - 지식기반산업 입지공급을 위한 시행방안
 -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, • 임대산업단지 활용, 소규모 입지공급
 - 외국인 전용단지 활성화, • 집적지구 지정 및 운영, • 합리적 역할분담 등
 - 저렴한 가격의 임대산업단지 및 임대공장 공급을 통해 산업입지 공급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, 제조업의 소프트화에 대응
 - 산업입지개발은 지역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계획과 추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
 - 여건변화에 맞춘 산업단지 지원제도 마련 필요
 - 수요발생 지역에 산업단지를 공급하되, 환경친화적 산업입지개발 유도
 - 공장집적지로서가 아닌, 각종 지원 및 서비스 기능이 집적된 새로운 도심으로 재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 필요
 - 초기 개발시 지식기반산업단지 지원 촉진 위해 국가산업단지로 개발, 이후 일반산업단지로 전환

- 지방 차원에서 효과적 외국인투자 유치 위한 입지방안 마련이 필요
- 해외 직접투자로 인한 산업공동화 대비 대응책 마련 필요

3) 충남의 산업입지 정책방향 종합

- 중앙 및 충남에서의 산업입지 개발계획을 보면 수요보다 많은 규모가 공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, 따라서 균형발전과 연계한 수급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임
- 공급되는 산업입지에는 향후 수요가 예상되는 지식기반산업 또는 첨단산업의 수요를 수용하는 방안이 필요함
 - 특히, 첨단산업 또는 지식기반산업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입지 원단위가 높은 산업의 유치가 바람직할 것임
- 외국인 투자기업이 고용 및 부가가치 측면에서 주는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(천안외국인전용공단 사례 참조)되고 있으며, 향후 중요도는 더욱 확대될 것임
 - 따라서 공급되는 산업입지에 외국인 투자기업과 연계하는 입지 개발전략이 필요함
- 충남의 경우에도 오래된 산업입지의 재정비 수요가 발생될 것인 바 이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입지시책이 필요함
-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
 - 특히, 수도권에 인접한 또는 고속도로에 연접한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개별입지를 계획입지에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필요함
 - 이에는 현재 새로운 제도로써 추진 중인 “준산업단지” 제도의 적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
- 향후 수요는 소규모, 임대 중심으로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충남지역에도 소규모 임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함
 - 소규모 산업단지 활성화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, 전문화된 신산업지구의 조성, 대도시 주변지역 중심으로 공급을 추진함
- 향후 국가산업단지의 역할이 변화될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함

요 약

- 즉, 향후 산업입지 공급은 일반산업단지 중심으로 발생할 것과 국가산업단지의 역할이 변화할 것을 적극 대응토록 할 필요가 있음
- 산업단지 개발에 환경친화적인 개념을 적극 도입함
 - 생태산업단지의 개념의 적용도 검토함
 - 아울러 환경에 대한 기준 및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토록 함
-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조성정책의 안정적 정착
 -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도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는 물론 입주기업과 인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상생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
 - 정주여건은 주거, 생활편의, 보건·의료, 교육, 문화체육, 교통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영역을 포함

4. 산업입지 여건변화 전망과 과제

1) 산업입지 여건변화 전망

對중국 투자 급증 및 기업이전 러시

-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는 실행액 기준으로 1995년 약 8억 4천만 달러에서 2005년 26억 3천만 달러로 매년 평균 12.07%씩 증가하고 있음
 - 1992년 한·중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대중투자는 1999년 3억 6천만 달러 수준으로 격감하다 2000년 이후 연평균 29.84%씩 급증하고 있음
 - 이러한 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중국은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투자대상국으로 변모함

<표 4-1>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추이

(단위 : 백만\$, 건수, %)

| 구분 | | 1995 | 2000 | 2005 | 연평균 증가율 ('95-'05) |
|------|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고기준 | 건수 | 884 | 913 | 2,312 | 10.09 |
| | 액수 | 1,281 | 999 | 3,578 | 10.82 |
| 실행기준 | 건수 | 751 | 776 | 2,242 | 11.56 |
| | 액수 | 842 | 713 | 2,631 | 12.07 |

자료 : 한국수출입은행, 국가별 해외투자통계, 각 년도

- 이처럼 대중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경에는 '90년대 들어 생산비용 절감 및 신시장 개척, 과도한 국내규제 등의 이유로 중국으로 이전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임
 - 국내 기업의 대중투자는 여전히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절감형 투자가 내수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추구형 투자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남 (KIEP, 2004)
 - 주목할 만한 사실은 대중국 투자동기가 대기업의 경우는 내수시장 진출이며, 중소기업의 경우는 저렴한 인건비에 있다는 것임

요 약

- 그러나 최근 대기업들의 중국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'납품업체의 중국진출'이 대중투자의 중요한 동기로 부각되고 있음

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가속화

- 그간 수도권 규제는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의한 각종 행위제한과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한 권역 및 공간구조 조정이라는 양대 축으로 추진되어 왔음
 - 수도권 규제의 주요내용은 정비권역 및 행위제한, 공장총량제, 대학규제, 조세 및 부담금의 차등부과 등임

<표 4-2> 수도권 정책 추이

| 추진단계 | 연도 | 시책명 | 주관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|
| 문제인식기 | '64 '69 | •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 • 대도시 인구 및 시책의 조정대책 | 건설부 |
| 시책형성기 | '70 '73 | • 수도권 인구과밀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• 대도시 인구분산책 | 건설부 경제기획원 |
| 정비추진기 | '77 '82 '84 | • 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 •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• 수도권정비계획 기본계획(1984-1996) | 건설부 |
| 시책전환기 | '94 '97 '06 | •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전면개정 •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(1997-2011) •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(2006-2020)확정 · 고시 | 건설교통부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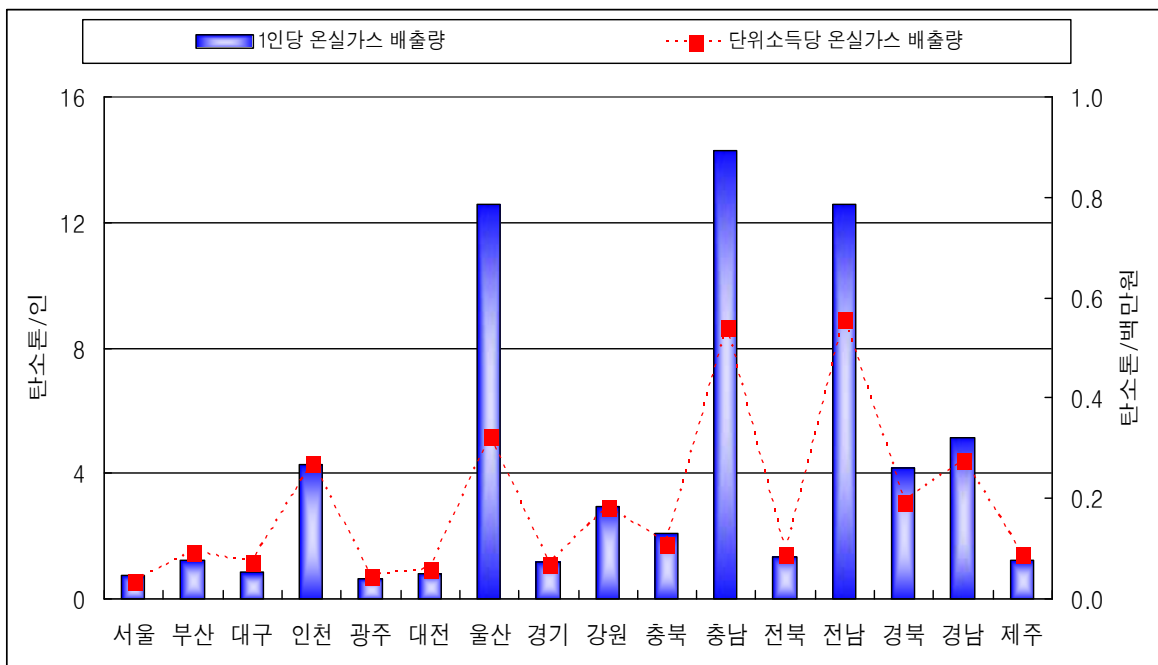
자료 : 「수도권 규제의 쟁점과 정책방향」 Keri(2006)의 내용을 재구성

-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수도권 정책기조는 규제에서 기업투자 및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음
 - 공장신설 · 증설 · 이전규제 개선책으로 산업단지 내(과밀억제 · 성장관리권역)에서는 공장 규모 · 업종과 관계없이 공장 신설 · 증설 · 이전을 허용
 - 공장과 산업단지에 대한 입지규제 개선으로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 토록 확정된 지구에서는 산업단지총량규제를 배제하고, 서울시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허용

-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으로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중심 → 총량제 · 배출규제중심으로 전환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(전체 면적의 25%)으로 지정된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

환경(Green)과 성장(Growth)의 조화,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필요

- 그동안 충남지역은 제조업의 비약적 성장을 토대로 양적인 측면에서 고도성장을 이루어왔음
 -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1인당 및 소득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충남지역이 그동안 질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임



- 따라서 기후변화는 충남지역의 지속성장(sustained growth)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핵심적인 여건변화라 할 수 있음
- 이러한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, 지속가능한(sustainable growth) 성장을 가능케 하는 '국가의 녹색성장전략(Green Growth National Growth Strategy)'을 적극 수용하여 환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야말로 충남지역이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음
- 이를 위해서는 환경(Green)과 성장(Growth)이 조화되는 다시 말해, 양적 성장 보다는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적극 고려해야만 함
- 이를 위해서는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'저탄소 경제(Low Carbon Economy)'를 지향하고, 동시에 주력산업의 '녹색화(Greening)'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
 - 특히,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을 집적화해야함
 - 아울러 자원순환·생산성 제고 및 자원순환산업의 성장동력화를 통한 자원순환형 경제를 지향해야함.

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공급의 중요성 대두

- 최근 들어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환경관련 압력이 강화되고 있음
 - 대내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관심 및 환경의식이 증대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,
 - 대외적으로는 환경보호를 이유로 선진국에서 일방적 무역규제의 강화를 시도하는 등 산업환경에 관한 여건이 급변하고 있음
- 산업입지 측면에서도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개발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개선노력이 구체화됨
 - 정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소규모·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키로 함(2004. 4)
 - 공장 설립은 가급적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로 유도하고, 관리지역에 개별공장이 입지할 경우에도 가급적 시장·군수가 지정하는 '공장설립가능지역' 등으로 유도키로 함
-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

개발 및 운영으로 인한 환경상의 문제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, 충남지역도 예외가 아님

- 장항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집단간 상이한 가치관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전형적인 사례임
- 향후에도 환경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활동 공간에 있어서도 환경친화적인 입지공급이 요구됨
 - 경관 및 생태를 최대한 고려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산업입지를 통해 집단간 이해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

2) 과제

**산업입지 수급계획의 수정은
이러한 다양한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합리적으로 수용해야 함**

- 현재 국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및 이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산업의 탈공업화(deindustrialization)가 아닌 산업공동화(hollowing-out)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
 - 즉, 국내 제조업의 활력약화와 함께 기업이 중국으로 이전됨으로써 국내 기반이 소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신산업의 창출이나 산업의 고도화 없이 산업구조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 것임
 - 따라서 대중국 투자를 국내산업의 구조조정과 모기업 생산의 전문화 및 고부가가치화 촉진의 계기로 삼아 '다품종 소량생산'과 '경박단소한 제품 생산' 등 지식기반경제에 부합하는 생산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됨
-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국제환경규제 정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산업입지와 환경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임
 - 특히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지역 내 주민집단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(environmentally friendly) 산업입지 계획 및 개발이 요구됨
 - 나아가 기존 산업단지의 환경문제로 인한 인접주민과의 갈등해소 및 단일기업위주의 청정생산 기술개발 적용의 한계극복을 위해 자원순환형 산업단지 구축을 고려할만 함

요 약

- IT 및 자동차 산업의 경우 충남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역산업구조가 양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
 - 이처럼 IT 및 자동차 산업은 충남의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이나, 소재·부품·장비 등의 역외 의존도가 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실정임
 - 따라서 관련 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집적화할 필요성이 있음

**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산업용지 공급은
수요규모의 변화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**

- 사회·경제적 여건의 변화나 기술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산업활동의 토지이용의 변화를 초래함
 - 사회·경제 내 모든 활동은 토지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, 이는 바로 토지가 사회·경제 내 생산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가리킴
- 따라서 장래 발생하게 될 사회·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토지수요를 용도별로 예측하고, 그에 맞는 토지공급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
 - 왜냐하면 토지가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공급되는 경우, 자원의 유희시설(idle capital)을 발생시키기 때문임
 - 반대로 수요에 비해 과소하게 공급되는 경우에는 혼잡(congestion)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임
 - 따라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토지의 공급은 장래 수요 규모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함
- 또한 지역경제 측면에서 토지수요를 결정할 때는 지역의 산업구조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함
 - 왜냐하면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산업들의 구조특성에 따라 토지수요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임
 - 그리고 산업의 생산활동에 주안점을 둔 토지이용을 언급하는 경우, 토지수요는 결국 기업들의 입지수요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음

5. 충남 산업입지 수요추정

1) 수요추정의 방법과 예측기법

「광공업통계조사」의 부지면적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산업용지 수요를 추정

- 통계청의 「광공업통계조사」 시계열 자료(1984~2003년)를 이용
- 생산기술이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실질 생산액 (혹은 고용) 원단위 부지면적의 변화에 기인한 산업입지 수요 추정상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장점이 존재
- 부지면적에 대한 2004년부터의 자료(한국산업단지공단 「FEMIS」)가 존재하나, 「광공업통계조사」는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체를 포함하지 않고 「FEMIS」는 500㎡ 미만의 건축면적을 가지고 있는 공장을 반드시 포함하지는 않음으로 인한 두 자료 간의 불일치 문제가 존재

변수의 추세를 예측하는 기법으로는 단순 추세, 이동평균, 지수평활 등에 의한 추세법을 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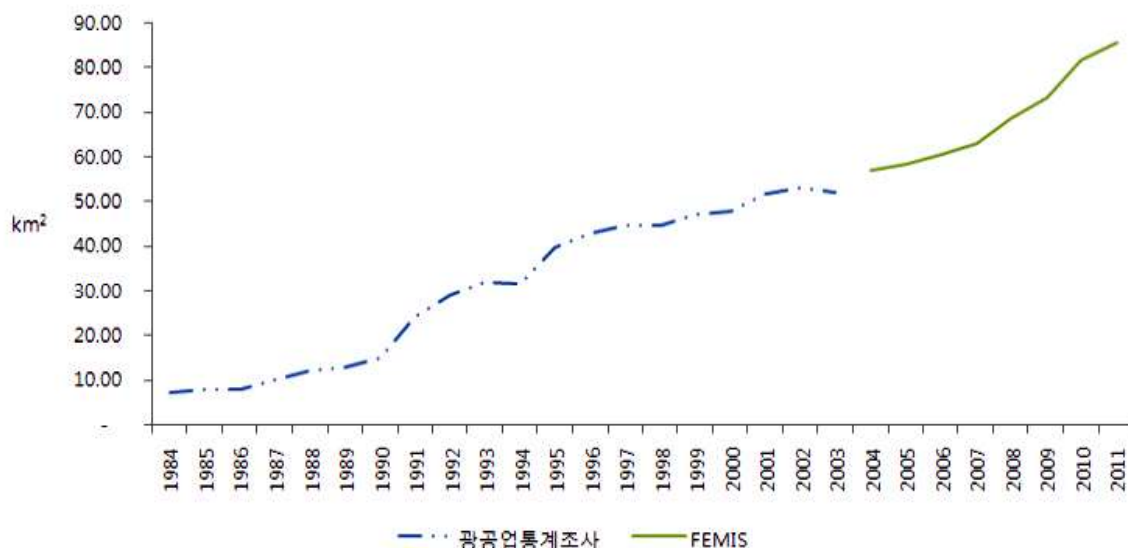
- 단순 추세법
 - 단순 추세에 의한 추정은 연도별 부지면적 자체를 시간(연도)에 대한 함수로 정의하고 이를 통상최소자승(OLS)에 의해 추정함
- 이동평균법(moving average method)
 - 본 연구에서 t시점의 이동평균에 의한 변수값-이를 테면, 부지면적-은 $t-2, t-1, t, t+1, t+2, t+3$ 시점의 변수값들의 평균치이며, 분석결과의 강건성(robustness)을 검토하기 위해 이동평균의 계산을 위한 구간(window)을 달리한 결과를 추가로 제시함
- 지수평활법(exponential smoothing method)
 - 지수평활법은 단순 지수평활법, 이중 지수평활법, Holt-Winter 지수평활법 등이 존재하나, 본 연구에서는 단순 지수평활법을 이용함

요 약

2) 수요추정 자료와 결과

충남 제조업 부지면적은 1984년 7.18km²에서 2003년 51.99km²로 44.81km²만큼 증가하였으며(통계청 자료), 2011년에는 85.58km²까지 증가함(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)

- 부지면적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자료로는 통계청의 「광공업통계조사」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「FEMIS」를 고려할 수 있음
 - 통계청의 「광공업통계조사」는 2003년까지만 부지면적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며, 한국산업단지공단의 「FEMIS」는 2004년부터 자료를 제공함



자료 : 통계청, 광공업통계조사, 각 년도; 한국산업단지공단, FEMIS, 각 년도

(그림 5-1) 연도별 충남 제조업 부지면적

- 하지만, 「광공업통계조사」는 종사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「FEMIS」의 경우 부지면적이 500m² 미만인 업체는 조사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, 이 두 자료를 하나의 시계열 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적합함

- 「광공업통계조사」에 의하면 충남 제조업 부지면적은 1984년 7.18km²에서 2003년 51.99km²로 44.81km²만큼 증가하였으며, 「FEMIS」에서는 2004년 56.73km²에서 2011년 85.58km²로 28.85km²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부지면적 과거치를 이용한 추정결과에 의하면, 충남 제조업 산업입지(계획입지)의 수요는 연평균 1.916km²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

- 충남 전체의 제조업 부지면적 수요는 2020년에 102.89km²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
 - 「광공업통계조사」의 1984~2003년 자료를 이용한 충남 제조업 부지면적의 추정은 2020년에 단순 추세법에 의한 105.43km², 이동평균법에 의한 102.99km², 지수평활법에 의한 100.25km²로 나타나며, 평균적으로 102.89km²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

<표 5-1> 부지면적에 대한 추세연장법을 이용한 충남 제조업 부지면적의 추세

(단위 : m²)

| 변수 | 추정법 | 2000 | 2010 | 2020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부지면적 | 단순추세 | 47,609,481 | 77,184,792 | 105,425,880 |
| | 이동평균 | | 76,081,456 | 102,989,000 |
| | 지수평활 | | 73,281,848 | 100,254,000 |
| | 평균 | | 75,516,032 | 102,889,627 |

주 : 추정은 통계청의 「광공업통계조사」 1984~2003년의 자료를 이용함

- 2020년까지 충남 제조업 산업입지(계획입지)의 연간 수요는 1.916km²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
 - 충남 제조업 부지면적에 대한 수요는 2000~2010년의 기간에 연평균 2.79km²의 증가(연평균 4.72%의 성장)를 나타내는 반면, 2011~2020년의 기간에는 연평균 2.74km²의 증가(연평균 3.14%의 성장)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며 계획입지에 대한 수요는 1.916km²(전체 부지면적 수요의 70%)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

요 약

<표 5-2> 부지면적에 대한 추세연장법을 이용한 충남 제조업 산업입지 수요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(성장률)
(단위 : km², %)

| 변수 | 추정법 | 2000 ~ 2010 | | 2011 ~ 2020 | |
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| | 연평균 증가 | 연평균 성장률 | 연평균 증가 | 연평균 성장률 |
| 부지면적 (계획입지) | 단순추세 | 2.958 | 4.95 | 2.824 (1.977) | 3.17 |
| | 이동평균 | 2.847 | 4.80 | 2.691 (1.884) | 3.07 |
| | 지수평활 | 2.567 | 4.41 | 2.697 (1.888) | 3.18 |
| | 평균 | 2.791 | 4.72 | 2.737 (1.916) | 3.14 |

주 : 괄호 안의 수치는 계획입지(전체 부지면적 수요의 70%)를 나타냄

- 계획입지에 대한 연평균 수요를 예측기법별로 살펴보면, 단순 추세법이 1.977km²로 가장 크게 예측하고 이동평균법과 지수평활법은 각각 1.884km²와 1.888km²로 예측함

개별 시군에 대한 산업입지 수요추정의 결과에 의하면, 서산시가 연평균 0.427km²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, 그 다음은 천안시, 아산시 등의 순으로 나타남

- 충남 개별 시군의 산업입지(계획입지) 수요의 추정은 충남 전체에 대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되, 계룡시와 태안군의 경우 각각 논산시와 서산시에 포함하여 추정한 후에 최근의 비율에 따라 배분함
 - 제조업 부지면적에 대한 자료가 계룡시의 경우 1990년부터 이용가능하며 태안군은 1988년부터 자료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들이 속해 있는 지역-계룡시의 경우 논산시, 태안군의 경우 서산시-에 포함하여 함께 제조업 부지면적 추세를 추정한 후에 「FEMIS」의 2007~2011년 자료를 이용해 계룡시와 논산시 혹은 태안군과 서산시의 최근의 제조업 부지면적 비율을 적용해 지역별 산업입지 수요를 결정함
 - 최근의 제조업 부지면적 비율은 계룡시와 논산시의 경우 각각 2.20%(면적으로는 0.3 km²)와 97.80%(15.6km²)로 나타나며 태안군과 서산시의 경우 각각 3.65%(1.9km²)와 96.35%(50.7km²)로 나타남

- 개별 시군의 산업입지(계획입지) 연평균 수요는 서산시가 0.427km²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, 그 다음은 천안(0.367km²), 아산(0.360km²)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
 - 권역별로는 천안, 아산, 서산, 당진을 포함하는 북부권이 1.420km², 보령, 서천, 태안을 포함하는 서해안권이 0.093km², 공주, 계룡, 연기, 청양, 홍성, 예산을 포함하는 내륙권이 0.238km², 그리고 논산, 금산, 부여를 포함하는 금강권이 0.165km²로 나타남

<표 5-3> 충남 전체와 권역 및 시군별 계획입지(부지면적)에 대한 연간 수요 예측결과의 요약
(단위 : km²)

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충남 전체 | | 1.916 | | | | | |
| 북부권 | 1.420 | 서해안권 | 0.093 | 내륙권 | 0.238 | 금강권 | 0.165 |
| 천안 | 0.367 | 보령 | 0.043 | 공주 | 0.039 | 논산 | 0.050 |
| 아산 | 0.360 | 서천 | 0.033 | 계룡 | 0.001 | 금산 | 0.080 |
| 서산 | 0.427 | 태안 | 0.016 | 연기 | 0.103 | 부여 | 0.035 |
| 당진 | 0.265 | | | 청양 | 0.028 | | |
| | | | | 홍성 | 0.015 | | |
| | | | | 예산 | 0.052 | | |

6. 충남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

1)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입지 공급

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공급규모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인 수요도 고려해야 함

- 충남 산업용지 공급규모 산정에 있어서 수요예측 결과 이외에 지역의 특성에 따른 정책적인 수요도 고려해야 할 부분임
 - 주요 산업입지 관련 법제 중 충남 지역의 내용에 따라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산업단지 방향이 제시됨
 - 충남 지역의 경우, 규모가 큰 국가산업단지가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, 일부 업종의 실수요자 개발이 활발하고, 황해자유구역, 국제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지정, 세종시 및 내포신도시(도청이전) 개발 등 산업입지 수요와 관련한 다양한 영향요인이 있음
 - 이에 따라, 정책적 수요를 고려한 산업입지 공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함

**에너지, 화학, 전자, 자동차, 제철 분야
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**

- 천안, 아산, 서산, 당진 등 충남 북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
 - 서산은 에너지, 화학, 아산은 전자, 자동차, 당진은 제철 분야의 실수요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, 지정된 이후 조성중이거나 미개발인 산업단지라도 분양률은 상당히 높은 편임
 - 주로 대기업들의 입주에 따른 실수요자 개발로 인접 산업단지에 해당 분야 업체들의 추가적인 수요를 발생시킴

황해경제자유구역 - 당진 송악지구, 아산 인주지구

- 충남 지역 내 당진 송악지구와 아산 인주지구 10,229천㎡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, 토지이용계획상 산업유통시설용지는 1,746천㎡임
 - 향후 세부 개발계획안 수립시 산업유통시설용지의 구체적인 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유치산업은 자동차부품과 전자정보임

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- 천안, 연기(세종시)

-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는 대전 대덕특구로 기능지구는 세종시, 천안, 청원(오송, 오창)으로 결정됨
 - 충남은 천안과 연기(세종시)의 두 지역이 기능지구로 결정됨에 따라, 산업, 금융, 교육, 연구 등이 입지할 것임
 - 천안지역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영상미디어 분야, 2차 전지, 축전지 분야를 특화산업으로 제안함

(서해안권) 임해산업단지 - 산업입지법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특화산업단지 - 산업집적법

- 상위 산업입지 관련 법상 제시하고 있는 서해안권의 임해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특화산업단지 등의 정책적 수요도 고려해야 함
 - 서해안지역에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임해산업단지, 내륙지역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적정규모의 산업단지 개발
 - 산업의 지역별 특화와 연계강화를 목적으로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중소규모의 특화산업단지 개발
 -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수요를 고려한 공급계획 수립이 필요함

세종시 건설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업종 변화 - 대체산업단지 대전에서 내포 신도시로의 도청이전에 따른 연관 산업 이전

-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 지역이 세종시로 편입되는 행정구역 변화는 향후 충남의 산업입지공급계획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
 - 세종시와 주변지역에 입지한 산업단지의 경우, 업종변경 등의 변화로 재정비되고 있으며, 향후 행정구역 상 충남에서 독립될 것임
 - 따라서, 충남의 산업입지공급계획에서 수요, 공급면적 산정시, 이 부분을 별도로 고려해야 할 것임
- 충남도청이 이전되는 내포신도시 개발로 최근 홍성, 예산지역의 산업입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
 - 홍성, 예산 지역은 내륙지역으로 과거에는 수요가 많지 않았으나, 최근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등을 위해 이전하는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
 - 과거추세에 따른 수요예측으로 볼 때, 실질적인 수요보다 적게 추정될 수 있음

2)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충남 적용방안

산업입지 수급계획은 바람직한 산업입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산업입지 수급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

- 국토해양부장관의 수급계획 수립지침 작성과 시·도지사의 수급계획 수립의 법적근거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 2항임
- 시·도의 산업여건, 시군구별 지역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·도지사가 수립하는 산업입지 분야의 전략계획임
 - 계획의 실효성을 위해 산업입지 수요와 공급실적을 검토, 5년 주기로 수정·보완하는 계획임

-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, 지역별 및 입지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,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, 산업단지 지정 및 주요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음

계획수립의 기본원칙 :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계획, 지역산업 육성정책 고려, 친환경적 산업입지, 5년 단위 평가·수정·보완

-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계획과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포괄하여 수립함
- 친환경적 산업입지로 개발방향을 제시하며, 계획입지 위주의 산업입지공급체계를 구축함
 - 광역녹지축, 생태계보전지역, 농지, 임야,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 등은 공급대상에서 배제
- 계획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,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의 수정·보완을 실시함

계획수립 유의사항 : 공급규모를 최소치와 최대치로 제시 (유연성 확보), 수정이 필요한 부분 발체하여 보완

- 수급계획은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하되, 미래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임을 고려하여 유연성확보를 위한 최소치와 최대치로 제시(±5%)
- 수급계획 정비시 기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발체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함
 - 수급계획 변경시는 기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함

**산업입지 수요추정의 기본원칙 : 산업시설용지를 기준으로
신뢰성 있는 기관의 20년 이상의 자료를 사용, 과거 추세치에
의한 방법과 생산액 원단위에 의한 방법 사용**

- 산업입지 수요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른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추정하며,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기준으로 함
 - 분석을 위한 자료는 신뢰성 있는 기관의 최근 20년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고,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료출처를 명시
- 산업입지 수요추정 방법은 과거 추세치에 의한 방법과 원단위에 의한 방법에 따르되, 실증적 추정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음

$$\begin{aligned} \text{산업입지 공급면적} = & \\ & [\text{순수요 면적} + \text{선공급 면적} + \text{재개발 재정비 면적}] \\ & - [\text{미분양 면적} + \text{해외이전면적} + \text{휴·폐업 면적}] \end{aligned}$$

- 산업입지 공급면적은 순수요 면적에 추가수요면적을 감안하여 산정함
 - 순수요 면적 : 추세치, 원단위 방법 등에 의한 순수요 면적
 - 선공급 면적 :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간 동안 공급의 공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, 기업의 입지수요와 공급 간의 시간적 불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되는 면적으로 계획입지에 대해서 3년치 수요를 선공급
 - 재개발·재정비 면적 : 20년 이상 경과 산업단지 또는 도시지역 확산에 따른 업종 재배치 등으로 재개발, 재정비가 필요한 면적
 - 미분양 면적 :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 가운데 기업수요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만 선공급 된 면적으로 간주
 - 해외이전 면적 : 향후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에 의해 발생하는 이전적지의 면적
 - 휴·폐업 면적 : 휴업 및 폐업한 공장의 면적
- 입지유형별(계획입지, 개별입지)로 수급계획을 수립하며, 도지역의 경우 계획입지 비율을 70%로 산정함

**국토해양부, 지식경제부의 수요조사 결과에 제시된
충남 지역의 수요는 각각 연평균 1.0km², 1.7km²~2.1km²**

- 국토해양부 ‘산업단지 공급관리대책(2011)’에서, 2010년 6월 국토연구원의 분석결과로 2020년까지 전국에서 연평균 약 9.0km²의 수요를 제시
 - 충남지역의 경우 2020년까지 산업용지 수요는 14.4km², 이 중 계획입지비율 70%를 고려할 경우, 계획입지에 대한 산업용지 수요는 10.08km²로 제시함(연평균 1km²)
 - 선공급 면적을 고려한 공급 필요면적으로는 최대 18.8km²로 제시함
 - 충남지역은 기 지정된 산업단지의 공급가능 면적(2010년 6월 기준, 24.9km²)를 고려할 때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한 지역으로 나타남
- 지식경제부,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실시한 ‘전국 산업입지 수요조사 결과(2010)’에서 2009년~2014년까지의 공장용지 수요는 120.8km²~149.4km²로 나타남
 - 시도별로는 경기(26.1km²~32.8km²), 경남(20.3km²~25.5km²), 경북(12.7km²~16.9km²) 이어 충남(13.5km²~16.7km²)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
 - 2009년~2014년까지의 충남지역 계획입지 수요는 10.2km²~12.3km²로 제시하고 있으며, 이는 연평균 1.7km²~2.1km²의 수요를 의미함

**충남 지역 수요추정 결과
연평균 계획입지의 수요는 1.916km²로 나타남**

- 국토해양부의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년 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, 충남 지역의 연간 계획입지 수요는 1.916km²로 나타남
- 충남 지역은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, 최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 수 증가율도 전국 최상위임
 - 2000년~2010년 동안 GRDP의 연평균 증가율이 9.40%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임
 - GRDP의 전국 평균이 4.41%임을 고려할 때, 두 배가 넘는 결과임

요 약

- 2000년~2009년 동안 충남 지역 제조업체 수(종사자 10인 이상)의 연평균 증가율은 4.20%로 전국 최상위임
- 제조업체 수 증가율의 전국 평균이 1.41%임
- 따라서,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분석하여 제시한 연평균 계획입지 수요 1.916 km²는 충남 지역경제 현황을 반영하고 있음

**충남 지역의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 결과 2011년~2020년까지
계획입지 수요는 24.908km²이며, 추가 공급규모는 16.573km²임**

- 산업입지공급규모 수립지침에 따라 순수요 면적과 선공급 면적, 재개발재정비 면적을 합산한 결과는 24.908km²임
 - 순수요 면적 : $1.916\text{km}^2 \times 10\text{년} = 19.160\text{km}^2$
 - 선공급 면적 : $1.916\text{km}^2 \times 3\text{년} = 5.748\text{km}^2$
 - 재개발, 재정비 면적 : 없음
 - 2012년~2020년 계획입지 수요 : $19.160\text{km}^2 + 5.748\text{km}^2 = 24.908\text{km}^2$
- 미분양 면적과 해외이전면적, 휴폐업면적을 합산한 공급가능 면적은 8.335km²임
 - 미분양 면적은 기 지정된 산업단지의 분양면적 중 분양이 완료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지로 8.335km²임
 - 해외이전면적과 휴폐업면적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
- 따라서, 향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추가 공급규모는 16.573km²로 추정함
 - $24.908\text{km}^2 - 8.335\text{km}^2 = 16.573\text{km}^2$

3)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기본방향

**과거 공장용지 공급추이와 최근 산업입지 여건변화를 고려한
합리적인 공급계획 수립**

- 과거 공장용지 공급추이를 고려한 권역별 공급규모 분배, 최근 산업입지 여건변화에 따른 증감추세를 반영한 시군별 분배
 - 지속적인 산업입지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계획을 수립
 - 산업입지의 공급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공급규모를 분배 후, 실수요에 따라 시군에서 탄력적으로 공급
 - 내포신도시, 세종시 등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한 공급계획 수립

개별입지의 계획입지 유도, 지역산업육성정책을 고려한 산업집적 유도 등 효율적인 산업입지 관리

- 충남의 계획입지 비율은 2011년 4/4분기 기준(www.femis.go.kr) 35.62%로 산업입지공급 계획 수립지침 상 제시된 목표 70%에 비해 낮음
 - 계획입지(산업단지)의 경우, 오폐수 시설 등 환경적인 규제가 많은 반면, 지구단위 개별입지는 규제가 적음
 - 개별입지의 경우,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고려하여 입지하는 경우가 많음
 - 따라서, 개별입지의 계획입지 유도를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정책이 필요
- 지역산업육성정책에 따라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집적을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산업입지 관리가 필요

수요창출과 수요대응을 고려한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

-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이 도내 입지하는 경우, 실수요자 개발 방식으로 산업단지가 지정되고 있음
 - 실수요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은 인접 지역에 새로운 수요창출을 발생시킴
 -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민간부문의 기업요구를 수용하고 추가적인 수요에 대응

환경관리체계구축, 지역별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 친화적 생태산업단지 조성

- 수요가 있는 지역에 산업단지를 공급하되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로 개발되어야 함
 - 경쟁적인 산업단지 개발은 과도한 개발로 미분양사태의 초래와 환경문제의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음
 - 앞으로 소득수준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산업단지의 개발은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산업단지의 지정·개발이 매우 어렵게 될 것임
 - 산업정책, 입지정책, 환경정책의 합리적 연계가 필요하며,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환경용량을 감안한 산업입지 개발이 추진되어야 함

근로자의 작업환경과 정주여건을 고려한 산업단지 공급계획 수립

- 기존 산업단지 정책은 산업용지, 도로, 항만, 수자원, 정력 등 물리적 입지여건 공급에 치중하고, 사회, 경제, 문화적인 입지여건은 간과해온 경향이 있음
 - 앞으로의 산업입지 공급은 단순 노동력의 확보나 생산 및 판매활동에 필요한 물리적 하부구조 보다는 정보 및 서비스 접근의 용이성과 환경의 쾌적성 확보에 치중할 필요가 있음
 - 작업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넓은 작업공간, 편리하고 쾌적한 작업 및 주변 환경이 필요하며, 주거환경으로는 단순한 주거수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단위의 질 높은 사회적, 문화적 도시환경이 포함되어야 함

4) 충남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



(그림 6-1)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비전 및 목표

- 비전 :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(Sustainable Development)구현
 - 산업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산업입지 수요예측과 공급가능지 분석을 바탕으로 도의 산업정책 및 육성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
- 목표 및 추진전략
 - 산업집적기반 구축과 산업경쟁력 강화
 -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전략적으로 산업의 집적을 유도함과 아울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
 - 토지(산업용지)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간 균형개발
 - 공간적으로 한정된 토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, 지역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
 -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
 - 기업의 현실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발하되, 경관 및 생태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산업입지 개발을 추구

산업입지 공급 유연성 확보

- 저렴한 임대용지 확보 및 임대산업단지 조성
 - 지역 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의 입지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임대산업단지와 임대공장을 공급함으로써 산업입지 공급의 유연성 확보

신개념 생산공간 조성

- 기업지원 관련 생산환경 조성
 - 주거, 생산, 연구, 정보, 업무, 상업, 유통기능 등을 동일한 단지 내에 유치함으로써 집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
- 지식기반산업단지(전문화 및 소규모 산업단지) 조성
 -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물리적 하부구조 보다는 정보 및 서비스 접근의 용이성과 환경의 쾌적성을 도모하는 지식기반산업단지(전문화 및 소규모 특화단지)조성
- 생산공간의 경쟁력 강화
 - 인력공급, 교육훈련 및 창업보육 지원, 산·학·연 연계촉진과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 지원 활성화

환경 친화적인 산업입지 개발

- 지역별 환경용량 파악 및 환경성 검토
 - 산업입지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지역별 환경용량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(environmentally friendly) 산업입지개발 추진
- 주민참여형 산업입지 의사결정체계 구축
 -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집단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산업입지개발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도록 의사결정과정에 해당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

- 환경관리체계 구축
 - 자연환경과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환경관리방안 수립과 산업입지개발 전단계에 걸친 일관된 환경관리체계 구축
- 생태산업단지(Eco-Industrial Park, EIP) 조성
 - 기업 간 생태학적 연계를 통해 물질 및 에너지의 사용과 오염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유기적 관계로 구성된 산업단지를 조성

외국인투자 촉진기반 조성

- 입지정보 시스템 운영
 - 외투기업의 부지수요과 충남도의 입지제공 정보를 연계하여 실시간 입지정보 시스템 운영
- 투자유치 기반 조성
 - 외투기업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투자자유지역을 지정하여 업종별 전문화단지, 핵심기업 연계단지 등을 추가적으로 조성하고, 외투기업의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유지역개발기금 조성
-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조직 구성
 - 조직의 창의성, 효율성,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유치 전담T/F팀에 강한 권한을 부여하고, 적극적인 잠재 투자자 탐색 및 유치활동 전개

수요 대응적 산업입지 공급

- 지역별 · 업종별 · 입지유형별 수요조사
 - 충남지역 내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주수요조사를 실시하고, 이를 바탕으로 조성지역 및 지역별 단지규모 등을 결정
- 수요 대응적인 산업용지 공급체계 구축

요 약

- 향후의 산업수요, 지역내외의 경제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인 산업용지 공급체계 구축 및 운영
-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
 - 기업의 현실수요에 부합한 적정입지의 확보가 가능토록 실수요자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입지경쟁력을 제고

상생 산업단지 조성

- 산업단지 종사하는 근로자가 도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는 물론 입주기업과 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
 - 생산, 업무, 주거, 교육, 의료,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입지 심의기준 마련 및 조례제정 등 산생산업단지 조성 기반 구축

<표 6-1> 충남 산업입지 공급의 추진전략 및 계획과제

| 추진전략 | 계획과제 |
|----------------|---|
| 산업입지 공급유연성 확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저렴한 임대용지 확보 및 임대산업단지 조성 |
| 신개념 생산공간 조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업지원 관련 생산환경 조성 • 지식기반산업단지(전문화 및 소규모 특화단지) 조성 • 생산공간의 경쟁력 강화 |
| 환경 친화적인 산업입지개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별 환경용량 파악 및 환경성 검토 • 주민참여형 산업입지 의사결정체계 구축 • 환경관리체계 구축 • 자원순환형 산업단지 조성 |
| 외국인투자 촉진기반 조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투자유치 기반조성(외투기업전용 업종별 전문화단지 조성) •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조직 구성 • 입지정보 시스템 운영 |
| 수요 대응적 산업입지 공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별·업종별·입지유형별 수요조사 • 수요 대응적인 산업용지 공급체계 구축 •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|
| 상생 산업단지 조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• 추진체계 구축(추진위원회, 분과위원회, 시군추진위원회) • 종합계획, 추진계획 수립, 평가 및 보완 |

북부권은 환황해경제권 생산·교역의 거점으로 충남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유도

- 북부권 내륙지역에 정보·기술집약적 첨단산업을 배치하되 산업단지간·지역간 산업협력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·대덕R&D특구 등과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(충청남도 종합계획(2012~2020), 2012)
 - 아산만권 주변으로 전자정보기기, 자동차, 정밀화학, 바이오, 철강 등 전략산업의 생산 및 R&D 기능 중심의 첨단산업 집적지를 조성하여 디스플레이산업과 자동차부품 산업에서의 집적의 경제(agglomeration economies)가 실현되도록 발전을 유도

서해안권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하고 첨단 신산업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산업입지 공급

- 항만 배후지 및 서해안고속도로 IC 연접부를 중심으로 신산업 집적지를 조성(충청남도 종합계획(2012~2020), 2012)
 - 타 업종에 비해 지역 내 공장용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석유 및 화학제품, 금속제품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조성
 - 당진의 철강산업과 연계하여 소규모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하고, 재생에너지산업은 기업간에 자원·에너지·부산물을 순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태산업단지 형태로 조성
 - 아울러 환경문제를 감안하여 자원순환형 또는 오염 무배출형(zero-emission) 등과 같은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

내륙권은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첨단문화산업 및 농·축산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공급

- 충남의 중서부 지역에 인구 10만의 다기능 내포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거점을 형성하고 주변지역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(충청남도 종합계획(2012~2020), 2012)
 - 석유 및 화학제품, 유리 및 비금속광물제품, 금속제품, 전기·전자 및 정밀기기 업종의

요 약

공장용지 수요가 많으므로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조성

- 홍성, 청양, 예산 지역에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BT산업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농·축산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고, 연기, 공주 지역에는 천안과 연계하여 문화컨텐츠 전문 단지, 벤처단지를 조성

**금강권은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
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산업입지 공급**

- 역사문화자원, 경관환경자원, 토지자원, 다양한 농촌 어메니티자원 등을 활용하여 복합적인 녹색성장기반을 구축(충청남도 종합계획(2012~2020), 2012)
 - 논산과 금산에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각 군수산업단지와 인삼약초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, 부여에는 문화컨텐츠 전문단지를 조성

**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연평균 총 공급규모,
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공급규모를 추정함**

- 산업용지의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연평균 총 수요는 2.736km²로 나타났으며, 권역별로는 북부권 2.028km², 서해안권 0.133km², 내륙권 0.340km², 금강권 0.235km²로 나타남
 - 수요에 따른 산업용지의 총 공급 규모는 다시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구분할 수 있음
 -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계획입지 비율을 70%, 개별입지 비율을 30%로 추정한 결과는 다음 표에 제시함

<표 6-2> 권역별 산업용지 연평균 공급규모(수요추정 결과)

(단위 : km²/년)

| 구분 | 충남 계 | 북부권 | 서해안권 | 내륙권 | 금강권 |
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총 공급규모 | 2.736 | 2.028 | 0.133 | 0.340 | 0.235 |
| 계획입지 | 1.916 | 1.420 | 0.093 | 0.238 | 0.165 |
| 개별입지 | 0.820 | 0.608 | 0.040 | 0.102 | 0.070 |

주 : 북부권은 천안, 아산, 서산, 당진, 서해안권은 보령, 서천, 태안, 내륙권은 공주, 계룡, 연기, 청양, 홍성, 예산, 금강권은 논산, 금산, 부여를 포함함

충남의 향후 2020년까지 산업용지 공급면적은 33.108km²로 추정되었으며, 계획입지 24.908km², 개별입지 8.200km²임

- 충남의 향후 2020년까지 산업용지 공급면적은 추정된 연평균 공급규모와 산업입지공급 규모 수립지침에 따라 산정한 결과로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음
 - 산업입지공급규모 수립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향후 10년과 선공급 3년을 적용한 결과 임(재개발, 재정비 수요 없음)
 - 충남 전체 공급규모는 33.108km²로 계획입지 24.908km², 개별입지 8.200km²로 산정됨
 - 권역별로는 북부권 공급규모가 충남전체 공급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남

<표 6-3> 향후 2020년까지 충남 권역별 산업용지 공급규모(수요추정 결과)

(단위 : km²)

| 구분 | 충남 계 | 북부권 | 서해안권 | 내륙권 | 금강권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총 공급규모 | 33.108 | 24.540 | 1.609 | 4.114 | 2.845 |
| 계획입지 | 24.908 | 18.460 | 1.209 | 3.094 | 2.145 |
| 개별입지 | 8.200 | 6.080 | 0.400 | 1.020 | 0.700 |

2020년 누적 계획입지 공급규모 추정결과 충남 전체 72.034km²이며, 북부권이 50.578km²로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남

- 2011년 4분기 현재까지 계획입지로 공급된 산업용지의 규모는 충남 전체 47.126km²로 향후 공급규모를 고려할 경우 2020년 누적 공급규모는 72.034km²가 될 것으로 나타남
 - 북부권의 2020년 누적 공급규모는 50.578km²로 충남 전체 공급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남
 - 권역별 누적 공급규모는 다음의 표에 제시함
 - 그러나, 제시된 결과는 수요추정의 결과만을 반영한 것으로 공급계획 수립시에는 최근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조정될 것임

요 약

<표 6-4> 향후 2020년까지 충남 권역별 계획입지 누적 공급규모(수요추정 결과)

(단위 : km²)

| 구분 | 충남 계 | 북부권 | 서해안권 | 내륙권 | 금강권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누적 공급규모 (2020) | 72.034 | 50.578 | 5.579 | 10.960 | 4.917 |
| 계획입지 공급규모 (2011~2020) | 24.908 | 18.460 | 1.209 | 3.094 | 2.145 |
| 기 공급규모 (조성중·미개발 제외) | 47.126 | 32.118 | 4.370 | 7.866 | 2.772 |

주 : 기 공급규모는 2011년 4분기 현재까지 분양 완료된 면적을 의미함

**권역별 공급계획은 미분양 규모와 최근 권역의 여건변화,
상위 계획,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수립함**

- 2011년 말 미분양 면적은 8.335km²로서 계획입지 공급계획(2011~2020) 규모 수요추정 면적(24.908km²)에서 차감 적용
 - 권역별로는 북부권 5.459km², 서해안권 0.368km², 내륙권 2.508km²로 나타남
- 북부권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으나, 기 지정된 공급규모가 크고, 지가상승 등의 수요 감소 요인이 나타나고 있음
 - 또한, 도내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
- 반면, 내륙권은 내포신도시, 세종시,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사업 등과 연관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
 - 최근 예산을 중심으로 내포신도시 인접 지역인 홍성, 청양 등의 산업입지 수요가 급증
 - 세종시와 관련하여 인접 지역인 공주를 중심으로 산업입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
 -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 연구 성과 상용화를 위한 입지수요 예측됨
- 이에 따라, 조정된 충남 권역별 공급계획은 다음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음
 -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권 수요 중 일부를 서해안권과 내륙권, 금강권으로 분배함
 - 내륙권 수요를 반영하여 북부권과 서해안권, 금강권의 일부 수요를 내륙권으로 분배함

<표 6-5> 2012~2020년 충남 권역별 산업입지 공급계획

(단위 : km²)

| 구분 | 충남 계 | 북부권 | 서해안권 | 내륙권 | 금강권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총 공급규모 (2012-2020) | 24.773 | 13.738 | 1.976 | 5.640 | 3.419 |
| 계획입지 | 16.573 | 9.361 | 1.342 | 3.355 | 2.515 |
| 개별입지 | 8.200 | 4.377 | 0.634 | 2.285 | 0.904 |

- 공급계획에 따른 2020년 계획입지 누적 공급규모는 북부권 52.745km², 서해안권 7.569 km², 내륙권 15.364km², 금강권 5.947km²로 나타남

<표 6-6> 향후 2020년까지 충남 권역별 공급계획상 산업입지 누적 공급규모

(단위 : km²)

| 구분 | | 충남 계 | 북부권 | 서해안권 | 내륙권 | 금강권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계획 입지 | 기 공급 | 65.052 | 43.384 | 6.227 | 12.009 | 3.432 |
| | 2012-2020 공급 | 16.573 | 9.361 | 1.342 | 3.355 | 2.515 |
| | 2020년 누적 | 81.625 | 52.745 | 7.569 | 15.364 | 5.947 |
| 개별 입지 | 기 공급 | 55.097 | 39.847 | 2.108 | 8.414 | 4.729 |
| | 2012-2020 공급 | 8.200 | 4.377 | 0.634 | 2.285 | 0.904 |
| | 2020년 누적 | 63.297 | 44.224 | 2.742 | 10.699 | 5.633 |
| 2020년 누적 계 | | 144.922 | 96.969 | 10.311 | 26.063 | 11.580 |

주 : 계획입지 기 공급은 2011년 4분기 기준 분양대상면적(미개발 포함). 개별입지 기 공급은 FEMIS(2011년 4분기 기준) 자료

**권역별 공급규모는 총량적인 의미에서 수립된 계획으로,
산업입지 여건변화에 따라 권역내 시군 간 분배는 조정이 가능함**

- 산업입지 수요는 기반시설, 지가, 특정산업의 집적 등 다양한 요인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, 충남 지역의 경우 실수요자 개발이 활발함에 따라 시군의 공급규모 분배는 수정될 가능성이 많음
 - 따라서, 권역별 공급계획은 총량적인 의미에서 제시된 것이며, 시군간 분배는 조정이 가능함

권역별 공급규모를 총량으로, 최근의 산업입지 현황, 여건변화, 정책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급규모를 분배함

- 최근 산업입지 현황, 여건변화, 정책수요 등에 따라 권역별 총량을 분배하고, 공급가능 면적(기 지정된 산업단지 중 미분양 면적)을 제외하여 산정함

연차별 공급계획은 향후 여건변화에 따른 산업입지 공급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내포신도시, 세종시 등 내륙권 수요에 대비하여 분배함

- 연차별 공급계획은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2012년, 2013~2015년과 2016~2020년으로 구분하여 제시함
 - 세종시와 내포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는 2012년, 2013년 전후의 산업입지 수요를 고려하여, 2013~2015년에 공급규모의 비중을 60%로 산정함
 - 평택당진항의 2단계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후 관련 수요가 증가될 것을 고려함
- 권역별 공급계획의 공급면적은 수요분석에 따른 결과로 실제 산업입지 수요에 따라 권역 내외에서 시군 간 협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, 공급시기 또한 조정 가능함
 - 제시된 공급계획은 미래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임을 고려하여 공급규모의 $\pm 5\%$ 에서 유연성을 가짐

<표 6-7> 권역별 산업입지 수급계획(계획입지)

(단위 : km², %)

| 구분 | 수요추정 면적 | 미분양 면적 | | 추가공급 면적 | | 공급계획 | | | 2012-2020년 공급 계 |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| | | | | | 2012 | 2013~ 2015 | 2016~ 2020 | | |
| 계 | 24.908 | 8.335 | 100 | 16.573 | 100 | 6.619 | 5.973 | 3.981 | 16.573 | 100 |
| 북부권 | 18.460 | 5.459 | 65.5 | 13.001 | 78.4 | 5.037 | 2.595 | 1.729 | 9.361 | 56.5 |
| 서해안권 | 1.209 | 0.368 | 4.4 | 0.841 | 5.1 | 0.246 | 0.658 | 0.438 | 1.342 | 8.1 |
| 내륙권 | 3.094 | 2.508 | 30.1 | 0.586 | 3.5 | 1.046 | 1.385 | 0.924 | 3.355 | 20.2 |
| 금강권 | 2.145 | 0.000 | 0.0 | 2.145 | 12.9 | 0.290 | 1.335 | 0.890 | 2.515 | 15.2 |

<표 6-8> 권역별 산업입지 수급계획(개별입지)

(단위 : km², %)

| 구분 | 수요추정 면적 | | 공급계획 | | | 2012-2020년 공급 계 |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| | | 2012 | 2013~2015 | 2016~2020 | | |
| 충남 계 | 8.200 | 100.0 | 0.918 | 2.732 | 4.550 | 8.200 | 100.0 |
| 북부권 | 6.080 | 74.1 | 0.491 | 1.458 | 2.428 | 4.377 | 53.4 |
| 서해안권 | 0.400 | 4.9 | 0.070 | 0.213 | 0.351 | 0.634 | 7.7 |
| 내륙권 | 1.020 | 12.4 | 0.256 | 0.761 | 1.268 | 2.285 | 27.9 |
| 금강권 | 0.700 | 8.6 | 0.101 | 0.300 | 0.503 | 0.904 | 11.0 |

충청남도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(2006), 충남 산업입지 공급계획(2009)의 결과와 비교

- 충남의 산업입지 관련 공급계획은 2006년, 2009년 수립되었으며, 2012년은 2009년 수립된 공급계획의 수정계획임
 - 각각의 계획에서 제시한 권역별 산업용지(계획입지)는 다음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음
 - 2006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충남 전체의 2011~2020년 산업입지(계획입지) 공급규모는 49.9km² 임
 - 2009년 공급계획에서는 2011-2018년 30.3km²로 2006년 기본계획 보다 줄었음
 - 그러나 2012년 수정계획에 제시된 산업입지 규모는 16.6km²로 앞선 두 계획보다 적게 나타남
 - 이는 공급계획 수립에 있어서 2011년 이전에 지정되었으나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일부 정책적 목적을 가진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존재하기 때문임(미분양 8.3km²)

<표 6-9> 기 수립된 수급계획에서의 권역별 산업용지(계획입지) 규모 비교

(단위 : km²)

| 구분 | 충청남도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(2006) | | 충남 산업입지 공급계획 (2009) | | 충남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(2012~2020)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2011~2015 | 2016~2020 | 2011~2015 | 2016~2018 | 2012~2015 | 2016~2020 |
| 충남 계 | 33.339 | 16.604 | 26.267 | 3.997 | 12.592 | 3.981 |
| 북부권 | 17.824 | 12.038 | 13.415 | 2.175 | 7.632 | 1.729 |
| 서해안권 | 9.193 | 0.165 | 3.234 | 0.591 | 0.904 | 0.438 |
| 내륙권 | 3.783 | 2.087 | 4.805 | 0.727 | 2.431 | 0.924 |
| 금강권 | 2.539 | 2.314 | 4.813 | 0.504 | 1.625 | 0.890 |

